

박두진 詩의 윤리 의식 연구

朴 春 德*

차 례

- | | |
|----------------------|---------------|
| 1. 머리말 | 4. 예언자적 윤리성 |
| 2. 시의 변모과정과 기독교시적 경향 | 5. 구도자적 윤리의 시 |
| 3. 관념시와 윤리적 이미지 | 6. 맺음말 |

1. 머리말

박두진 시인은 1939년 『文章』誌에 <香峴> <墓地頌>을 추천받아 시단에 등장한 이래 현재까지 열권이 넘는 시집과 시론집 등을 발간했다. 오랜 시적 편력에 비한다면 시인의 태도 특히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나 세계관은 시기적인 변화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등단할 때에 보여준 심상구조¹⁾와 종교적 염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시의 주제나 관심에 있어서는 시기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의 시작과정을 대체로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등단 이후부터

* 고신대학교 교수

- 1) 박두진은 시적 출발 당시부터 보여준 <참록파>의 자연사상에서 시작하여 우리 문단에 <新自然>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시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지용, 문장 제2권 1호, 1940), p. 195

『청록집』(1946), 『해』(1949)를 발간하기 까지를 初期로, 詩集 『오도(午禱)』 『거미와 성좌』 『인간필림』 『하얀날개』가 나온 50-60년대의 시기를 中期로, 그 이후를 後기로 잡을 수 있는데²⁾ 『고산식물』 『수석열전』 『사도행전』 『續 수석열전』 『야생대』 『예레미야의 노래』 『포옹무한』 등의 시집이 출간되었다.

이제까지 박두진에 대한 연구는 그를 기독교시인으로서 다룬 것이 일반적 관점이었고 이러한 평가에는 별다른 異論이 있을 수가 없다.³⁾ 여기에 덧붙여 민족시인, 참여시인으로서의 면모도 중시되었다.

박두진 詩에 대한 연구의 방향은 그의 시에 나타난 <자연>의 의미와 <해>로 상징되는 이상세계의 성격에 집중되었다. 『해』와 같은 작품에서 드러나듯 이상향 혹은 새로운 시대 역사의 ‘기다림’에 평자들은 주목하여 대부분의 논의가 여기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본고는 박두진의 시가 지향하는 대상의 의미는 기존의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보고⁴⁾, 그 기다림의 시학이 간직한 신앙적 태도와 그 윤리적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몇가지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2. 시의 변모과정과 기독교시적 경향

박두진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살펴보면 초기시에서는 민족적 비극을 종교적

-
- 2) 이러한 시기의 구분은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평가에 따라 달리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시집 한두권을 어느쪽에 넣느냐는 정도의 차이이다. 본고는 시인 자신의 구분(시집 『예레미야의 노래』 등)을 참조한 것이다.
- 3) 간혹 한국의 토속적 정서를 강렬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독교 시인이라는 평가는 유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기독교적’ 정서와 ‘한국적’ 혹은 ‘토속적’ 정서를 그렇게 배타적으로 볼 수 만은 없을 것이다. 정현기, 『박두진론(I)』, 『연세어문학』 9.10합집, 1977 참조.
- 4) 서정주,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69.
 조연현, 『한국현대작가론』, 청운출판사, 1965.
 김윤식·김 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오동춘, 『해산 박두진론』, 『국어국문학』 85, 1981.
 김봉균, 『박두진론』, 『한국현대작가론』, 민지사, 1984.
 박태욱, 『한국현대시의 기독교사상』,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83 등 참조.

차원으로 승화시켜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과 기다림을 노래했다. 중기시에서는 625의 비극과 419혁명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젊은 죽음들의 회생, 그 회생의 가치를 지키려는 열정과 사회악에 대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맞는 후기시에서는 신의 섭리와 사랑을 발견하고 찬양하는 신앙시의 경향을 주로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이고 개략적인 변화를 지적한 것이고, 그런 변화의 기저에는 강인한 신앙의 자세가 일관되게 자신의 시세계를 떠받치고 있다. 그의 시의 변모는 시작 초기에 수립한 자연과 인간과 신의 3단계의 범주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그 변모는 신앙적 자아나 세계관의 변모이기 보다는 지적 탐구 대상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관된 신앙의 견고함과 기독교적 지향성이 박두진의 고유한 특질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어떻게 한 시인의 생존 감각과 더불어 순수한 직관을 통한 창조성을 획득하느냐가 기독교시를 성립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기독교시의 창조를 말하려는 사람은 또한 그 자세에 있어 세계와 인류가 머리 위에서 떨어져 내려 오히려 거대한 바위의 위협을 의식하는 무서운 불안, 불행, 죽음에 이르는 고뇌와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탐구하려는 성실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모든 불안은 구세주의 수난의 불안에 통해 있고 육체적, 물질적, 정신적 불안과 신에게까지 버림받는 근본적인 불안을 맞본 그리스도의 갈보리에서의 내적 고민과 그 비밀을 스스로 체험하는 실존적 신앙적인 수련이 필요하다.⁶⁾

위의 인용에서 박두진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시인의 '생존감각'과 맞물리는 경우에만 "순수한 직관을 통한 창조성"이 획득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시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시의 창조란 결코 시인의 '생존감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서운 불안, 불행, 죽음에 이르는 고뇌와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탐구하려는 성실성", 즉 시인의 '생존 감각' 속에서 기독교적 진리를, 그 비밀을 "스스로 체험하는 실존적 신앙적인 수련"이 기독교시의 창조과정에 요구된다는 논리가 되는 것이다.

5) 박두진,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1970), p. 451.

6) 박두진, 「기독교 시와 한국의 현대시」, 『현대문학』 통권 118호, 1964.10

기독교시가 있으면 기독교의 생활이 있고 그 생활이 종교적 정서로 순화되고, 기독교정신으로 승화되고, 기독교 사상으로 토착·체계화될 때, 그러한 정신적 이념적 골격과 정서적 정감적 혈육이 유기화·생명화되어 기독교 종교시로서 기독교 신앙시로서, 기독교 생활정서의 형상화로서 발화·결실되어야 한다.⁷⁾

이러한 박두진의 논지에 기댈 때 시인의 '생존감각'에 대한 고려없이 기독교 의식의 규명이 이루어질 경우, 기독교시들은 단지 '미적 대상'⁸⁾으로만 파악될 수밖에 없다. 즉 "작품에 보여주는 반응에 있어서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갖는 의식의 주관적"⁹⁾형태에 의해 작품을 파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3. 관념시와 윤리적 이미지

박두진 시의 특이성은 무엇보다도 그의 자연의식의 독특함에 있다. 그의 자연은 한운운 조지훈의 禪의 자연주의나, 서정주 신석초의 불교적 자연주의 내지 도교적 자연주의나, 박목월 김소월의 외면적 객관적 자연이나, 김영랑의 유미적 자연주의와는 다른 내면적 자연, 주관적 자연, 주체적 자연¹⁰⁾이며, "그 속에 신의 의지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진선미와 聖의 근원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인 자연"¹¹⁾이다. 이러한 지적은 그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현실인식, 세계관, 주제의식, 신앙심 등을 표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징화한 자연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창조된 자연'¹²⁾인 것이다.

7) 박두진, 『현대시의 이해와 체험』 (일조각, 1976), p. 47

8) 무카로브스키는 '작품'은 물질적으로 주어진 의미의 상징이며, 미적대상은 독자의 집합적인 의식 속에 일어나는 작품에 관한 상관적인 의미라고 말한다. DW.Fokkernal Elrud Kunne-Ibsch, 『Theories of Literature in the twentieth century』 [정중화역, 20세기 문학이론, (울유문화사, 1985)], pp. 210~211

9) D.W.Fokkernal Elrud Kunne-Ibsch, 앞의 책, p. 216

10) 박철석,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자연관」, 『현대시학』, 1976, 2, pp. 125~126.

11) 이운용, 「자연과 기독교 신앙시」, 『한국현대시인론』 (지평, 1990), p. 98.

12) 이운용, 위의 글.

우뚝 솟은 산, 묵중하 없드린 산 골짜기 장송 들어섰고, 머루 다래냉쿨
 바위 엉서리에 얼렸고 살살이 떡갈나무 흑새풀 우거진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토끼, 오소리, 도마뱀, 능구리 등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향현」중에서

굴 안에 여왕 날개 돌힌 개아미가 하이안 알을 오소소 낳놓고 도글도글
 굴리며 만지며 어서 까서 새끼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앉았으리니라.
 「蟻」중에서

위의 시들은 자연의 물상들에 대한 가장 객관적 서술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우, 사슴, 산토끼, 능구리’들이 단순히 서경적 관찰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여우’와 ‘사슴’은 산에 뛰노는 무심한 동물들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잡아먹
 고 먹히는 처절한 생존경쟁의 관계에 있다. 개미굴 속의 여왕 개미 역시 죽고
 죽이는 처절한 생존의 場에서 종족을 이어가는 장엄한 생명력의 상징을 내포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박두진의 시는 관념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관념성은 시의
 윤리적 가치가 중시된다는 뜻이다.

박두진 시의 이미지는 빛-어둠, 낮-밤과 같이 이미지나 상징어가 이원적 대
 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밝음과 어둠의 대립은 성서적이며 윤리적인 가
 치의 대립이다. 구약에서 어둠은 역경·슬픔·죄악·심판울, 밝음(빛)은 번영
 ·행복·축복 등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빛은 의를, 어둠은 불법을 의미한다.¹³⁾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았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앓던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싫여……!
 「해」가운데서

이 시에서 ‘해’와 ‘어둠’은 대비된다. 그런데 해는 기다림의 대상이며 ‘어
 둠’은 회피의 대상이다. 박두진의 경우 ‘밤’이나 ‘어둠’은 ‘싫은 것’이다. 싫
 고 종교의 대상이라는 것은 그것이 의지에 의한 선택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이
 는 그의 시가 실천적 의지를 원동력으로 하는 ‘의지의 시’(poetry of the will)

13) 신익호, 『기독교와 한국현대시』, 한남대출판부, p. 113.

이며 관념적인 시(platonic poetry)라는 사실과 통한다. 여기서 관념시란 이미지가 비유적이며, 관념의 도구나 수단이 되는 시를 말한다.¹⁴⁾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
 바람에 불리우는 밤의 이 작은 촛불
 혼자서는 이 한밤 서서 타기 어려운
 너무 짙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소서.
 (중략)
 불길이게 하소서 차라리
 지직지직 타는 물길 밤을 불질러
 저 덧쌍이는 악의 섯을 불사르게 하소서.
 어둠이란 어둠을 다 불사르게 하소서.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중에서

이 시에서도 ‘밤’과 ‘어둠’은 모조리 불살라 없어지길 기도하는 ‘악’에 비유된다. 이러한 이원적인 가치의 대립은 박두진의 시를 특징짓는 요소다. 이 양가가치의 대립 자체는 선악의 대립이며 쁘과 욕의 대립이다. 그리고 이 대립을 극복함에 시인의 희망과 기원이 있는 것이다.

4. 예언자적 윤리성

인간은 기본적으로 실존적 제약성을 극복하고 삶의 정신적 완성(spiritual fulfillment)을 추구하는 근원적 열망을 갖고있다. 이 근원적 이상과 꿈을 표현하는 유형을 종교적 신념의 유형(Types of belief-system)이라 할 수 있다. 윤이훤에 의하면 이 신념의 유형은 ‘기복형, 구도형, 개혁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기복형은 그 사상적 모티프가 생존동기에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현세적 조건에 만족하는 보수주의적 태도를 나타낸다. 구도형은 자아의 완성과 진리추구를 지향하며 삶의 현존적 조건과 이상에 대한 깊은 각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고행과 극기를 통한 엄격한 도덕생활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혁형

14) 김춘수, 「한국 현대시의 계보」, 『意味와 無意味』(문학과 지성사, 1976), pp. 37~42 참조. 김춘수에 의하면 박두진의 「해」는 40년대 시 가운데서 관념시의 전형이다.

은 역사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그 때가 올 것을 준비해야 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사회의 조건과 황금시대의 이상이 차이가 심할 수록 새시대의 도래는 극적이며 새시대의 개벽은 더 장엄하고 충격이 크다.

그런데 어떤 종교적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신념의 유형이 어느 한가지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복합적인 양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이다. 바람직한 것은 이 세가지 유형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나타나는 경우라 할 것이다.¹⁵⁾

이러한 신앙의 유형이 문학에 적용될 때에는 윤리적 태도의 유형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 종교적 열망은 곧 문학이 추구하는 이상과 꿈일 것이며, 또한 신앙의 태도가 곧바로 문학의 윤리적 태도로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인용한 세 가지 신념의 유형을 그대로 시의 윤리적 태도의 유형으로 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현실의 열망과 그것이 한차례 걸러진 문학적 열망을 동일한 차원에서 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의 신념유형을 참조하되 문학 특히 시에서 그 시와 시인의 종교적 윤리적 태도를 유형화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꾼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구도자적 윤리, 예언자적 윤리, 그리고 윤리적 초월의 태도다. 이러한 유형 분류에 의한다면 박두진의 시에 나타나는 기독교적 신앙의 태도 및 윤리성은 예언자적 윤리라고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지적은 그 유형의 순수성이 아니라 우세한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예언자는 곧 선지자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미리 아는 자가 취하는 혹은 취해야 할 인식과 행동의 방향은 단지 신의 존재와 의미를 믿는 것에서 머물지 않는다. 예언자는 세인들이 모르는 것 혹은 확신하지 못하는 진실을 아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앎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말씀(Word)을 전달하고, '공표하는' 역할은 성직자의 역할이자 애초에 시인의 역할이기도 했다. 그 공표, 선포는 표현하고(to express) 말하는(to say)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곧 詩의 기능이자 윤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예언자적 윤리를 박두진의 시에서 발견하는 것이다.¹⁶⁾

15) 윤이훈, 『韓國宗敎研究』 卷I (집문당, 1988), pp. 14~29 참조.

16) 이런 관점에서 박두진의 시세계는 해피엔드를 향해 움직이는 희극으로서의 역

박두진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현실인식의 특징은 현세를 부정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인식한다. 다시말해 시적 사유의 기반이 현실부정의식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의 부조리, 지상의 현실의 모순 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그 강렬함이 달라진다.

초기시에 있어서의 부조리 인식은 식민지 상황이라는 민족현실에서 연유한다.

불이났다. 그리운 집들이 타고 푸른 동산 난만한 꽃밭이 타고, 이웃들은 이웃들은 다 쫓기어 울며 울며 흩어졌다. 아무도 없다.

일히들이 으르댄다. 양떼가 무절린다. 일히들이 으르대며 일히가 일히와 더불어 싸운다. 살점들을 물어뜯는다. 피가 흘른다. 서로 죽이며 작고 서로 죽는다.

「푸른 하늘 아래」중에서

집들이 불타며 양떼가 이리에게 무절리는 상황, 이리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상은 당시의 시대상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박두진은 이러한 현세의 참혹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자연이 재창조된 자연인 것처럼 이러한 상징물도 단순한 원관념만을 암시하지는 않으며, 현실의 상황에서부터 인간의 보편적 역사나 생명의 법칙에 까지 두루 미칠 보편화된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은 어떤 구체적 사실에도 두루 적용되지만 상징의 일차적 의미에만 집착하게 되면 언제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나 시인의 부조리 인식의 배경은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위의 초기 시들이 식민지 현실의 참혹상에서 뿔어나온 것이라면 중기 시에서 인식된 부조리는 민족 내부에서도 만연된 것이다.

인간밀림은
고독한 밀림
음모와 배반과 시기가 뒤엉킨
인간밀림은
치절한 밀림
탐욕과 저주와 살육이 무성한,
「人間密林」중에서

사관에 입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Frye, 『Th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한길사, 1985)], p. 234 참조

잔내비 칼 휘두른다.
 꽃밭이고 소년이고 양의 떼고 없다.
 피 보면 미친다는
 이리 냇에 취하여
 어쩌나 둘러서서 침묵하여 지켜보는
 대낮 여기 잔내비때
 칼휘두른다.

「잔내비」중에서

이러한 부정한 세계의 현상 앞에서도 결코 이러한 상황에 압도되는 경우는 없다. 시인은 언제나 그러한 상황을 초월해 있는데 그 초월성은 그 상황과 무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을 의미한다. 이런 초월적 우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시인의 굳건한 신앙심에서 온 것이다. 그는 신의 뜻과 의지를 속에 살고 있으므로 조금도 위축됨 없이 그 악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와 악에 대한 시인의 반응은 혹은 절규로, 혹은 분노의 외침으로, 혹은 저주로, 혹은 새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의 선언으로 혹은 염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초기시에서는 식민지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에 분노하면서도 기다림의 기쁨과 희망의 밝은 시세계를 잃지 않았다. 그것이 중기에 들어서면 분노와 절규로 변한다. 중기시의 배경은 6.25의 동족상잔과 무엇보다도 4.19혁명이 시의 모티프가 된다. 식민지의 현실에서 비교적 명확했던 선악의 구조가 동족 내부의 문제로 치환될 때 시인의 절망과 분노는 더욱 커진다.

비가 온다. 벌에는 비바람이 친다.
 눈이 온다. 벌에는 진눈깨비가 친다.
 그런데 이것은 또 그냥 오는 비바람 후려서 쳐내리며 있는 진눈깨비만은 아니다.
 은빛 빗줄기, 저, 척척척 녹아져 내리는 별빛 빗발들을 보라.
 은 꽃이 꽃물이 되어 녹아져 내리는 저 꽃빛 찬란한 꽃땀발 들을 보라.
 그 또 사이사이, 핏빛 후두겨 내리는,
 어디서인지 몰려와 내리는, 핏빛 아우성대는 빗줄기들을 보라.
 아, 이 고운, 이 진한, 척척척 어우러져 이겨져 흐르는,
 무지개빛 찬란한 빗발떼들을 보라.

「어느 벌판에서」중에서

내 마음이 설레이고, 내 마음이 때로는 가라앉고, 때로는 노도처럼 거세
이고, 때로는 쿵쿵 굴러 뭉부림치듯, 바다는 나보다도 먼저인 먼 아득한 그
시원의 날로부터, 설레이고, 가라앉고, 잠잠하고, 노하고, 뉘우치고, 한숨짓
고, 절규하고, 손을 들고, 그리고는 뒤척이고, 미쳐서 뛰고, 통곡하며 있었던
것일까?

(중략)

이제야말로 다시 와 만난 그 가슴과 바다는, 창조, 혁명, 피, 혼돈, 죽음,
절망, 뭉부림, 절규, 노호, 통곡, 그러한 것들의 모두를, 말갭게 씻어서 삼켜
삭혀 버리고, 빛과 어둠, 죽음과 생명, 사랑과 미움, 절규와 침묵, 저주와 기
도, 반항과 체념, 살과 살, 피와 피, 피와 피와 피와 피! 불꽃과 꽃과 꽃과
혀의, 아, 혼과 생명과 사랑의 그 웅어리의, 꽃과 불로 된 그 하나로 된 웅어
리의, 영원한 새 영원, 태초의 말씀의 그 새 말씀으로부터
— 할렐루야!

아, 너와 나는 이제야 다시 하나로 되살아 일어난 것이다.

「바다의 영가」중에서

쓸쓸함도 뭉부림도 흐느낌도 채 아닌
가장 안의 다시 솟는 가슴 맑음이며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울고싶음이며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소리지름이며
「별밭에 누워」중에서

이러한 격렬한 분노와 치절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결코 절망 속에 함
몰하지는 않는다.

참혹한 세계, 온갖 악과 부정과 혼란이 난무하는 세계를 지나 한줄기 빛이
내리기를 염원하는 시인에게 온갖 惡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일히는 일히로
더불어 싸우다가 일히는 일히로 더불어 멸하리라”(「푸른 하늘 아래」)는 구절,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 해야 솟아라.”라는 구절에서 일체의
악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길 바라는 것 같다.

불길이게 하소서 차라리
지직지직 타는 불길 밤을 불질러
저 덧짚이는 악의 싹을 불사르게 하소서.
어둠이란 어둠을 다 불사르게 하소서.

파도이게 하소서 차라리
 가라앉아 햇볕에 일렁이다가도
 일어서서 허영계 밀고가는 노도
 일체 악을 말살하는 노도이게 하소서.
 「나 여기에 있나이다 주여」중에서

일체 악을 말살하고 불살라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시인은 참지 못한다. 그러나 악의 말살 욕구가 생명의 말살, 증오로 이어짐을 경계한다. 그래서 “인간밀림 모두의 위에 /역수비가 내려라. /인간밀림 끝까지 /불이나 활활 불어라.”하며 악을 저주하는 ‘인간적’ 소망을 피력하다가도, 다시금 그 악을 짓는 인간과 생명 모두를 이렇게 끌어 안는다.

아,
 그렇지만 인간밀림은
 그래도 우리와 나의 사랑
 모두가 모두 무성하며
 한 하늘 아래 수련대는,

인간밀림 하늘에서
 초록비가 내려라.
 인간밀림 하나 가득
 햇살이 평평 쬐어라.
 「인간밀림」중에서

생명에 대한 사랑과 신의 섭리를 깨닫지 않고는 불가능한 포용이다. 그래서 이미 그의 등단 작품에서부터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동속이 사슴 토끼와 더 불어 싸릿순 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라?”라고 읊었던 것이 아닌가. 여우 이리의 ‘핏내’가 잊혀진 날, 일체 악이 소멸된 날 그 날이 시인이 갈구하는 황금시대인 것이다.

5. 구도자적 윤리의 시

박두진 시의 건강한 사회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굳센 확신, 예언자적 윤리의 당당함과 진실성은 그 믿음의 굳건함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신

념의 일관된 균셈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믿음이란 의문과 회의의 순간을 반드시 거치게 되며, 그런 순간을 극복함으로써 강하게 단련되는 것이므로 이는 신앙인의 지난한 과제가 된다.

종교적 주제를 시에 표현한다 할 때 바로 이 과제 즉 종교적 자아의 확립과 완성, 신과 인간의 관계설정은 핵심적 주제의 하나가 된다. 예언자적 윤리가 신의 섭리와 말씀을 인간세상에 선포하고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알리는 데에 주력한다면, 신 앞에 선 인간, 실존적 제약을 지닌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과정이란 곧 구도의 과정이다. 그러나 박두진의 경우 워낙 예언자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또한 자신의 실존적 자아를 시에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구도적 태도가 표현된 시는 박두진이 일찌기 설정했던 세 범주 '자연, 인간, 신' 가운데 '신'의 범주 즉 일반시들과 구별되는 신앙시들 속에 속하는 것이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다시말해 신의 존재 자체에 회의를 일으키거나 신의 섭리나 사랑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는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그의 신앙은 절대적이다. 대신 그의 물음은 신의 섭리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1)

언제가 처음이고
언제가 나중인가.

어디서부터가 시작이고
어디까지가 끝인가.

당신이 있다면 당신은 왜 있는가.
당신은 누구인가.
「귀뚜라미의 노래」중에서

그의 물음에는 언제나 의문부호가 붙지 않는다. 그것은 그 물음이 대답을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임을 의미하는 세심한 배려인지도 모른다.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결코 ‘당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바로 눈앞에 바라보”는 “꺼질 줄 모르는 불”같은 존재다. 다만 그 확고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하러 왔는지, 무엇하러 가는지,

내일 또
그 새가 날아올지
혹은 영영 안 날아올지,
나로서는 모르지만
당신께선 아시네.
「귀뚜라미의 노래」중에서

쫓겨서 벼랑에 홀로일 때
뿌리던 눈물의 푸르름
떨리던 풀잎의 치위를 누가 알까

땅바다 맨발로 년긋 돌아
수줍게 불러보는 만남의 가슴떨림
해갈의 물동이
눈길의 그 출렁임을 누가 알까
「聖孤獨」중에서

신의 섭리를 묻는다. 그러나 자신의 무지까지도 한없는 겸손으로 그것을 신의 뜻으로 수용한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무지, 이 암흑 속에서도 언젠가는 깨달음의 빛나는 태양이 비칠 거라는 믿음에는 한치의 의구심도 없다.

(2)

언제 내 눈앞을 열어주실까
일만점
구만 구천점
뚫어도 또 겹치는 무량점의 저 어둠
불 질러도 타지 않는
악마의 저 점점 포장

그 너머
신나는 밝음 주실까
억만개
주렁대는
처음 태양 주실까

「탕자한」중에서

내가 홀로 눈물로 흐느낄 때
당신도 바로
눈물로 흐느끼고,

내가 넘어져 무릎에 피흘릴 때
바로
당신도 넘어져
무릎에 피흘리고,
(중략)

내가 홀로서 칼갈음은,
당신이 바로
홀로서 칼 갈음,
내가
피 깃발 쳐들음은
당신이 바로
피 깃발 쳐드심인,
바로 당신
내 안의 나인 당신
왜 여태 몰랐을까.
「聖內在」중에서

그의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내면적 갈등이 없다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모든 의문은 확신 가운데서 던져지고, 그것이 자기자신에게로 향할 때에는 “내 안의 나인 당신/ 왜 여태 몰랐을까”에서 처럼 자신의 무지, 자신의 약은 신앙을 책할 뿐 절대자에 대한 절대적 믿음만은 변함없는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화살을 돌릴 때라도 참회의 고통이나 죄의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시말해 자기학대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것이 그의 철저한 겸손이다. 자신의 자아를 전적으로 신 앞에 내던져버릴 때, 자신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며 부끄러움조차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겸손이 박두진의 시가 자아의 갈등을 겪지 않게 하는 힘이며, 인간세계의 불의 앞에 한없이 강해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3)

百千萬萬億점
찬란한 빛살이 어깨에 내립니다.

작고 더 나의 위에
압도하여 주십시오.

일히도 새도 없고,
나무도 꽃도 없고,
쟁 쟁, 永劫을 별만 쬐는 나 혼자의 광야에
온몸을 벌거벗고
바위처럼 끓어,

귀, 눈, 살, 터럭
은 心魂, 全靈이
너무도 뜨겁게 당신에게 답읍니다.
너무도 당신은 가차이 오십니다.

눈물이 더욱더 맑게 하여 주십시오.
땀방울이 더욱더 진하게 해 주십시오.
핏방울이 더욱더 끈게 하여 주십시오.
「午禱」중에서

닭 울기 전
거듭 세번 물랐담을 누우쳐 痛哭하던, 당신의 늙은 弟子
베드로는 그래도
가야바의 뜰에까지 딸아래도 갔지만,

오오,
중얼거리며 나는
잡히시는 그 자릴 避해 달아 숨은 채
감람산.
어느 나무 뒷그늘에 혼자서 주크리고,

당신과 또 스스로의 배반을
몇줄기의 눈물론들 누우쳐나 봤을지요.
「감람산 밤에」중에서

마지막 내려 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뜨물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에여내는 비애를, 물새같은 고독을, 어떻
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팡 팡 쳐 못을 박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
질해 때리고, 입맞추어 배반하고, 매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강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
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
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血滴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갈보리의 노래 2」 중에서

이러한 기도에서 한없는 겸손과 독실한 신앙을 읽을 수 있다. 그렇게도 당당하고 그렇게도 웅대한 목소리로 인간들의 불의와 부정을 분노하고 질타했던 시인이지만 신 앞에 설 때에는 한없이 왜소한 존재임을 스스로 자각한다. 「감람산 밤에」에서는 자신의 신앙의 한없는 부족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겸손한 고백과 간구가 아니라 치열한 내적 갈등과 감동이 기도가 아닌 의문의 형식으로 울려 퍼지는 「갈보리의 노래」만큼 그의 치열한 구도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 시는 드물다.

신 앞에 선 한없이 약하고 그 약함을 알기에 한없이 겸손한 모습이다. 그 겸손함에서 오히려 바위같은 굳건한 신앙이 생겨난 것인지도 모른다. 승리의 욕망을 버리고 패할 때에 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는 역설. 스스로 약할 수 있을 때 강할 수 있다는 역설. 이 역설을 그의 시 속에서 증명해 보인다.

박두진의 시에 나타나는 구도적 모티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처절한 세계, 비참의 극을 다한 세계에서 신의 사랑을 확신하는 문제가 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¹⁷⁾라는 구절로 전형화되는 절망의 외침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절규이다. 이 성구는 「갈보리의 노래」1, 2, 3, 「사도행전 6」, 「할렐루야」, 「人子像」 등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인간 하나님의 고난과 절망이자 그 절망의 초극의 과정이다. 시인의 뇌리에는 현세의 절망스런 상황에서 그 절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도의 승리를 찬양하고 염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승리는 자신이 한없이 약한 인간임을 자각함에서 人子の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며, 그 약함 겸손함 때문에 그 승리가 사랑은 더욱 극적이며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17) 신약성경 마태복음 27:46, “제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6. 맺음 말

지금까지 박두진 시의 기다림의 시학이 간직한 신앙적 태도와 그 윤리적 성격의 진정한 가치를 규명해 보았다. 그의 시세계의 변모는 신앙적 자아나 세계관의 변모이기보다는 시적탐구 대상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그 일관된 신앙의 견고함과 기독교적 지향성이 박두진 시세계의 고유한 특질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의 시에 내포되어 있는 윤리의식에 대해서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그의 시의 특이성은 자연의식의 독특함에 있는데 그것은 그의 현실인식, 세계관, 주제의식, 신앙심 등을 표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해석하고 상징화한 자연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시는 강한 관념성을 띠고 있으며, 이 관념성은 그의 시에 있어서 시의 윤리적 가치가 중시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그의 시에서 두드러지는 현실인식의 특징은 현세를 부정하고 부조리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그 삶의 부조리, 지상 현실의 모순·비참함을 인식하는 것은 시기에 따라 그 강렬함이 달라지고 있다. 초기시에서의 부조리 인식은 식민지 상황의 민족현실에서 연유했고 중기시에서 인식된 부조리는 민족 내부에서 만연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절망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언자적 윤리를 우리는 박두진의 시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 박두진 시의 건강한 사회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굳센 확신, 예언자적 윤리의 당당함과 진실성은 그 믿음의 굳건함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의 예언자적 윤리는 신 앞에 선 인간, 실존적 제약을 지닌 인간이 진리를 인식하고 자아를 완성하는 구도자적 윤리의 시로 변모해 간다.

결론적으로, 박두진의 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면, 그의 시의 시간적 변모 과정 뿐만 아니라 초기시에서 후기시에 이르기까지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 선과 악의 윤리, 聖과俗의 세계가 모든 시의 구조 속에 함축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원적 가치의 세계를 변증법적인 합일로 이끄는 힘을 잃지 않는다. 그 힘은 강철같이 굳건한 그의 신앙심과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실천하려는 의지였던 것이다.